



[산업]
조직 유연함 키우는
현대차그룹
이번엔 넷타이 풀다
08

	코스피 2323.45 (+14.99)		코스닥 821.13 (-5.78)
	금리 (국고체 3년) 2.04 (+0.04)		환율 (원·달러) 1120.40 (-0.70) (20일)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옆에서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백두산서 하나된 두 손... '한반도 평화' 힘 싣다

남북정상회담

文金, 마지막 날 백두산 방문
페스트레이디, 수행원도 동행

한라·백두산 물 한데 담아
남측, 金에 한라산行 제안도

金, 북한산 송이버섯 2t 선물
文, 이산가족에 선물보내기로



천지(天池)가 개벽했다.
체감온도가 0°C까지 내려가 초
겨울 날씨를 보인 백두산 천지가
20일 36.5°C인 남과 북의 따뜻한
체온으로 채워졌다.

18일부터 이날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지막 친교행사로 백두산을 동행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 3, 4, L8)

지난 4월 27일 두 정상이 단독으로 만나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판문점 도보다리'의 2탄격이다.

남과 북의 페스트레이디인 김정숙 여사, 리설주 여사를 비롯해 수행원들도 함께했다.

백두산 천지를 둘러싼 봉우리 중 가장 높은 장군봉을 김 위원장과 함께 오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많이 갔다.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해서 오르겠다. 그렇게 다짐했는데 세월이 금방 올 것 같더니 멀어졌다. 영 못 오르나했는데 소원이 이뤄졌다"고 감격해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 남측 인원들, 해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실현될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전날 문 대통령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빠르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북측 최고 지도자의 서울행은 선례가 없다.

문 대통령은 전날 평양 능라도에 있는 '5월 1일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시민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김 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말해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또 첫 날 환영만찬에선 건배사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과 북 8000만 겨레 모두의 하나님을 위하여"를 외치기도 했다. 양 정상과 백두산에 동행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번에 서울 답방을 오시면 한라산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말해 양 정상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기념으로 문 대통령에게 북한산 송이버섯 2톤(t)을 선물했다. 송이버섯은 문 대통령이 귀환하기 전인 이날 오전 일찌성 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송이버섯을 미상봉 이산가족에게 추석 선물로 보내기로 했다"면서 "미상봉 이산가족 중 고령자를 우선해 4000여 명을 선정했고, 송이버섯 약 500g 씩을 추석 전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리 여사는 "우리나라 옛말에 백두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는 말이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서 마음을 담아 보낸 송이버섯이 부모형제

를 그리는 이산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열싸안을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란다"는 인사말도 선물에 함께 담았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김승호 차장(팀장)
이범종·구서운·나유리·정연우 기자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grovana.co.kr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GMT
1547.1528